// 평소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 개인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혼자서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하고, 생활 유지를 위한 금전적인 문제도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 프로젝트도 여러 개 만드는 편이었고, 근데 그냥 그렇게 개인 프로젝트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뭔가 그러면 완전히 정말 혼자서 만들어야하고, 아니면 돈이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더 제 자신으로 더 성장을 해야겠다는 것도 느껴졌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도 좋을 것 같았고 맨날 코딩은 혼자 있었는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협업하는 툴 같은것도 써보고, 그런 면에서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마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하는 광고를 보시고 부모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웹 같은 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웹인데 막 완전히 웹도 아니고, 네 그 제어판만 웹에 있고. 실제 작동은 좀 더 서버에 치중되어 있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웹을 쓴거죠. 이전에 만들어 본건 비트코인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만들었어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근데 느린데, 자바스크립트는 병렬에 특화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api가 개인에게는 초당 한 10번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서 속도가 충분했어요.

쉘은 많이 써보기는 했어요. 엄청 명령어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복잡한 명령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그냥 파이썬으로 짜가지고 실행하는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배시 자체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잖아요. 조건문도 쓸 수 있고, 근데 문법이나 띄어쓰기때문에 오류 도 나고 엄격해서 적응하기가 힘든거 같아요. 확실히 이 기회에 좀 쉘환경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꽤 필요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안했었는데 계속하다보니까 적응이 되는거 같아요.

C언어는 복잡한 문법 같은 거 다 보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씨로 뭔가를 작성해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쓸 수는 있는 정도인거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뭔가 파이썬 같은 언어를 하다 보면, 근본에 대해서 (low level)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느낌, 그래서 되게 씨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거는 되게 추상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무슨 명령으로 번역이 되는지 이런 거를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씨는 이게 컴퓨터 작동 원리랑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지를 얼핏 알 수 있는게 그런 면에서 되게 투명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조건 같은 건 좀 진짜 명확하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 다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여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백준 같은 걸 보면 문제 써진 대로 그냥 풀면 되잖아요. 뭔가 출력은 막 어떻게 작성돼야 된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과 다 얘기하면서 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던 로우 레벨의 문제들 있잖아요. 서로 설명하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과정을 가게 된다면 중간에 취업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할 것 같가요.

아직은 뭔가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단계인거 같아요.

// 인터뷰가 짧아 내용이 부실해 중간중간 제가 한 질문을 좀 섞어 살을 덧붙이면 좋을거같습니다 ㅠㅠ